

## ▶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상편 ◀

###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

- ❶ 자화상 (55문제)-----1쪽
- ❷ 최적전 (51문제)-----20쪽

(2)

-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40문제)-----48쪽
- ❷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30문제)-----69쪽

###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33문제)-----82쪽
- (2)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69문제)-----96쪽

###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1) 첫사랑 (36문제)-----118쪽
- (2) 돌다리 (46문제)-----133쪽
- (3) 성난 기계 (30문제)-----159쪽
- (4) 상기 (31문제)-----180쪽

###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 ❶ 음운의 변동 (63문제)-----201쪽
- ❷ 한글 맞춤법의 원리 (65문제)-----221쪽

◆빠른 전체 정답-----239쪽

◆해설-----242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핵심 정리

## 1 공손성의 원리와 경중 어법

<b>개념</b>	대화 참여자 사이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
<b>설명 기준</b>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 일치와 차이
<b>경중 어법</b>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

## 2 경중 어법의 다섯 가지 격률

설명 기준	종류	개념
‘이익과 부담’ 측면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칭찬과 비방’ 측면	칭찬의 격률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일치와 차이’ 측면	동의를 격률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 3 순서 교대 원리

<b>개념</b>	참여자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 가는 대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말하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야 한다는 원리
<b>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하는 경우</li> <li>•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는 경우</li> <li>•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li> <li>• 진행되는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경우</li> </ul>

🔍 지문 연구 ▶ ‘이익과 부담’의 측면에서 본 언어 예의 ▶ 관용의 격률

상대	자신	▶ 상대에게는 요령의 격률을, 자신에게는 관용의 격률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임.
이익 ↑, 부담 ↓	이익 ↓, 부담 ↑	

🔍 지문 연구 ▶ ‘칭찬과 비방’의 측면에서 본 언어 예의

상대	자신	▶ 상대에게는 칭찬의 격률을, 자신에게는 겸양의 격률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 있는 표현임.
칭찬 ↑, 비방 ↓	칭찬 ↓, 비방 ↑	

##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교과서 문제

1.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분류해 보자.

보기	
㉠ 침묵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하기.	㉡ 자신의 뜻으로 돌려서 말하기.
㉢ 상대를 칭찬하며 말하기.	㉣ 다른 화제로 대화의 흐름 방해하지 않기.
㉤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	㉥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하기.
㉦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기.	㉧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공손성의 원리 ㉠, ㉢, ㉤, ㉥, ㉧	순서 교대 원리 ㉡, ㉣, ㉦, ㉨
--------------------------	------------------------

2. 다음 이 대화에서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광호: 다 모였으니 축제 때 우리 동아리에서 할 시화전의 주제를 정해 보자.  
 은태: 선배가 동아리 회장이니깐 그냥 선배가 내는 의견으로 정해요.  
 광호: 내 의견으로? 함께하는 시화전인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가장 좋은 주제로 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아: ‘사랑’을 주제로 하면 어때요? 시인들도 ‘사랑’에 대한 시 많이 쓰잖아요.  
 새별: 말도 안 돼. 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싫어. 시인들이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너무 흔해. 윤석이 네 생각은 어때?  
 윤석: ‘사랑’이라는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시인들이 ‘사랑’을 주제로 시를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새별 선배 말처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많으니까 가족애, 인류애, 모성애, 조국애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써 보는 건 어떨까요?  
 진아: 좋은 생각이다. 나는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새별: 그러게. 윤석이는 생각이 참 깊은 것 같아.  
 윤석: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건 기본이죠.  
 광호: 자, 그럼 다른 의견은 더 없어? 의견이 더 없으면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시화전 주제로 정하도록 하자. 다들 주제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부분	어긴 격률	까닭
은태: 선배가 동아리 회장이니깐 그냥 선배가 내는 의견으로 정해요.	요령의 격률	은태는 시화전 주제를 정하자는 광호의 의견에 대해 동아리 회장인 선배가 그냥 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광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새별: 말도 안 돼. 나는 ‘사랑’이라는 ~ 그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	동의를 격률	새별은 진아의 의견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진아를 무안하게 하거나 진아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윤석: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건 기본이죠.	겸양의 격률	윤석은 새별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자만심을 드러낸 것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3. 나영이 동준에게 한 사과하는 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자.

동준: 나영아, 컴퓨터 부팅이 잘 안 되는데, 아까 사용할 때 괜찮았어?  
 나영: 부팅이 안 된다고? 컴퓨터 망가진 거야? 그래, 미안해. 그런데 그거 원래 바이러스 걸렸던 거 아냐? 네 컴퓨터 예전에도 고장 났었잖아.  
 동준: 무슨 말이야? 내가 사용한 다음부터 안 된다니까.

→ 컴퓨터 부팅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동준에게 나영은 “그래,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나영은 사과를 하면서 원래 바이러스가 걸렸던 것일 수도 있다며 핑계를 대고, 동준의 컴퓨터가 예전에도 고장 났었다는 말을 하며 동준이 컴퓨터 관리를 잘못한 것처럼 탓하듯 말하고 있다. 이처럼 사과를 하며 핑계를 대거나 상대를 탓하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여겨지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호: 야! 왜 나만 청소해? 좀 나눠.  
 성규: 뭐?  
 태호: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넌 창문 닦아. 난 교실 앞뒤 청소할 테니까.  
 성규: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태호: (말을 끊으며)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테만 청소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 빨리 끝나지.  
 민우: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성규: (말을 끊으며) 아니 어제도 했는데 20분 만에 끝났잖아. 도대체 왜 바꾸려는 건데? 까놓고 얘기해서 너 아까 시험 진 것 때문에 그러지? 내가 아까부터 느꼈는데……  
 민우: (끼어들며) 아니 내 말 좀……  
 태호: (말을 끊으며) 야, 넌 왜 사람 말을 그따위로 듣냐? 내가 그따위 축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냥 빨리 청소 끝내고 피시방 가려는 거 아냐.  
 성규: 하여간 개인적인 거 참 좋아해요. 솔직히 아까 시험 때도 네가 개인플레이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나대지만 않았어도 안 졌어.  
 민우: 야, 잠깐만, 잠깐만……  
 태호: (말을 끊으며) 내가 나했다고? (기분이 상한 듯이) 내가 너 도와주느라 그런 거 아냐. 넌 왜 맨날 사람 말……  
 성규: (말을 끊으며) 네 실력에 도움은 무슨 도움. 됐고, 청소나 하자.  
 태호: 야, 내가 아까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미 청소 끝났어.  
 성규: 뭘 소리야. 네가 말만 안 걸었어도 벌써 청소 끝났어.  
 민우: (화를 내며) 제발! 내 말 좀 들어 보라고!

1) ‘성규가 청소 방식을 건의하는 태호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된 대화의 원리와 해결방법은?

→ 요령의 격률 / 태호는 함께 청소를 맡은 성규와 민우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좋다.

2) ‘태호가 성규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이 상한’ 것과 관련된 대화의 원리와 해결방법은?

→ 칭찬의 격률 / 성규는 태호의 마음 상태를 넘겨짚어 태호를 비방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다.

3) ‘민우가 화를 낸’ 것과 관련된 대화의 원리와 해결방법은?

→ 칭찬의 격률 / 성규는 태호의 마음 상태를 넘겨짚어 태호를 비방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1. 다음은 대화 예절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듣고 말해야 한다.
- ② 정중어법이란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여 대화하는 방법이다.
- ③ 공손성의 원리는 자신에게는 부담을 주고, 상대에게는 이익을 주는 대화 방식을 권한다.
- ④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것을 칭찬의 격률이라고 한다.
- ⑤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대화하고 일치되는 면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동의의 격률이라고 한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학급 좌석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학급 회의시간이다. 다음 중 대화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한 해석은?

사회자: 한 달이 지났으니 새로 좌석을 옮기자는 의견이 있어서 좌석 배치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일동: 아니오, 이의 없습니다.  
 봄이: 남녀 학생이 섞여 있어서 소란스러운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으니 남녀를 나눠서 앉았으면 합니다.  
 새롬: 오히려 남자끼리 여자끼리 모이면 더 시끄럽지요. 반대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섞여 앉죠.  
 민우: 남녀를 나누는 것은 동성끼리 앉으니까 편한 점도 있을 거고, 섞여 앉으면 모둠활동에 더 적극적일 수 있으니 좋은데... 저는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보단 무작위로 정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 ① 사회자는 칭찬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
- ② 봄이는 겸양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
- ③ 새롬이는 동의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 ④ 민우는 관용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순서교대의 원리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문일고등학교 (서울)**

3. 다음 <보기>의 대화에서 ‘미나’의 발언과 관련이 있는 공손성의 원리를 쓰시오.

<보기>

미나: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쉬운 자료로 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다시 한 번 읽어 보겠니? 그래도 어렵다면 다른 자료를 찾아볼게.

**서라벌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가) 선생님: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서연: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나) 선생님: 지애야,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지애: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좋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 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는 말하기 규칙이다.
- ②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이다.
- ③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이다.
- ④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이다.
- ⑤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이다.

**서라벌고등학교 (서울)**

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나타난 공손성의 원리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1 > —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이다.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정중 어법이라고 하는데,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여 대화하라는 정중 어법에는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칭찬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과 같이 다섯 가지 격률이 있다.

— < 보기 2 > —

**(가)** 서연: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걸로는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 주세요.  
 선생님: 이게 어렵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읽어 보렴.

**(나)** 지애: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쉬운 자료로 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다시 한 번 읽어 보겠니? 그래도 어렵다면 다른 자료를 찾아 볼게.

- ① 요령의 격률                      ② 겸양의 격률
- ③ 관용의 격률                      ④ 동의를 격률
- ⑤ 칭찬의 격률

**가림고등학교 (인천)**

6. 동의를 격률을 지켜 말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의 의견 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상대와 자신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켜 이견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③ 대화 초반부터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먼저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의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여 일체감을 높인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다.
- ⑤ 상대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다만'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이나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다.

**서라벌고등학교 (서울)**

7. <보기>의 (가)~(라)를 참고할 때,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 보기 > —

**(가)** 서연: 나 지난 주말에 강화도에 다녀왔잖아. 고인돌이 엄청 크더라고. 고인돌은 선사 시대의 무덤……  
 승우: (속으로) 10분째 자기 놀러 갔다 온 얘기만 하네. 휴, 언제 끝나.

**(나)** 지애: 석재야, 네 생각은 어떠니?  
 석재: (아무 말 없이 앉아서) ……  
 재하: 석재야,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 우리는 네 생각도 궁금해.

**(다)** 승우: 이번 학기 소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서연: 응, 나는……  
 윤아: (말을 끊으며) 안동 하회 마을 어때? 나는 진짜 좋던데.

**(라)** 지애: 우리 학교 매점에서도 떡볶이를 팔면 좋겠어.  
 석재: 맞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재하: 근데,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지 않아?

- ①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 ②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기
- ③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기
- ④ 침묵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하기
- ⑤ 다른 화제로 대화의 흐름 방해하지 않기

**강동고등학교 (서울)**

8. '동의를 격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하는 방식이다.
- ②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말하기 규칙이다.
- ③ '다만'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④ 이견이 있는 부분은 먼저 이야기하고 순차적으로 공감을 표현한다.
- ⑤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문법 정리

## 1 높임 표현

• **높임법**: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

<b>상대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li> <li>•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며, 격식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해요체, 해체)로 나뉨.</li> </ul>
<b>주체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li> <li>•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잡수시다, 주무시다 등)를 사용하기도 함.</li> <li>•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기도 함.</li> </ul>
<b>객체 높임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li> <li>•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모시다, 뵈다, 뵈다, 드리다, 여쭙다, 여쭙다 등)를 통해 실현됨.</li> <li>•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 2 시간 표현

• **시간 표현**: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요소로, 국어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음.

•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뉨.

종류	개념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b>과거 시제</b>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았- / -었-, -았었- / -었었-, -더-	• 동사: -(으)ㄴ, -던 • 형용사: -던	어제, 아까 등
<b>현재 시제</b>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 동사: -는- / -ㄴ- - • 형용사: 없음.	• 동사: -는 • 형용사: -(으)ㄴ	오늘, 지금 등
<b>미래 시제</b>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겠-, -(으)리-	-(으)ㄹ	내일, 곧 등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뉨.

<b>진행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li> <li>• ‘-고 있다’, ‘-어(아)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li> </ul>
<b>완료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의 완료를 나타냄.</li> <li>• ‘-어(아) 버리다’, ‘-어(아) 있다’, ‘-어(아) 놓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li> </ul>

## 3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

<b>- 는 - / -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제를 표현함.</li> <li>•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음.</li> <li>•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li> </ul>
<b>-았- / -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시제를 표현함.</li> <li>•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li> <li>•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음.</li> </ul>
<b>- 겠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시제를 표현함.</li> <li>•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음.</li> <li>•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음.</li> </ul>

**4 피동 표현**

-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피동 표현의 형성 방법**: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들거나, ‘-되다’, ‘-어지다’, ‘-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냄.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표현 효과)**

-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함.
-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

- **피동 표현의 오용**: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표현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함.

<b>이중 피동 표현</b>	피동사나 ‘-어지다’, ‘-게 되다’ 등의 표현을 두 개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표현 예) 나뉘어지다(나누- + -이- + -어지다)
<b>불필요한 피동 표현</b>	능동 표현을 사용해야 국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번역 투의 영향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예)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5 인용 표현**

-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으로, 전달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뉨.

<b>직접 인용</b>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라고’를 사용함.
<b>간접 인용</b>	조사 ‘고’를 사용함.

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small>아주높임</small>	잡습니다	잡습니까?	잡으십시오 (잡으시지요)	-
	하오체 <small>예사 높임</small>	잡소/ 잡으오	잡소?/ 잡으오?	잡소/ 잡으오	잡으시다 잡는구려
	하게체 <small>예사 낮춤</small>	잡네	잡나?/ 잡는가?	잡게	잡으세 잡는구먼
	해라체 <small>아주낮춤</small>	잡는다	잡니?/ 잡(느)냐?	잡아라/ 잡으렴	잡자 잡는구나
비격식체	해오체 <small>두루높임</small>	잡아요/ 잡지요	잡아요?/ 잡지요?	잡아요/ 잡지요	잡아요/ 잡지요
	해체(반말) <small>두루낮춤</small>	잡아/잡지	잡아?/ 잡지?	잡아/잡지	잡아/잡지

④ 지문 연구 ▶ 격식체와 비격식체

격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나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함.</li> <li>• 심리적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줌.</li> </ul>
비격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식을 덜 차리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함.</li> <li>• 친근감을 줌.</li> </ul>

㉑ 보충 ▶ 간접 높임

주체 높임법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간접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사-'를 결합하여 실현한다. ㉑ 할아버지께서는 머리가 하얗게 세셨다.

④ 지문 연구 ▶ 높임 표현의 오용 사례

	잘못된 까닭	바른 표현
㉒	높임 필요가 없는 주체 '이 제품'을 높임.	고객님, 이 제품이 예쁩니다.
㉓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인데 높이지 않음.	선생님, 여쭙볼/여쭙 것이 있어요.
㉔	공적인 상황에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음.	이번에는 준호군(학생)이 말해 주십시오.

㉑ 보충 ▶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과 '-더-'

- -았었-/-었었-: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㉑ 작년만 해도 이 강에는 물고기가 많았었다.
- -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㉑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시더라.

#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모라신 문제

1. 대상이나 상대에 맞게 높임 표현을 바꾸어 보자.

아들에게 너 밥 먹었니?	→	아들에게 할아버지께서는 진지 잡수셨니 / 진지 드셨니?
친구에게 동생을 데리러 가고 있어.	→	친구에게 큰아버지를 모시러 가고 있어.
재호에게 재호야, 많이 아파?	→	선생님께 선생님, 많이 <u>편찮으</u> <u>세요</u> / 편찮으십니까?

2. 다음 대화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아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고, 바르게 고쳐 보자.

점원: 어서 오십시오.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연: 이 티셔츠 어때? 내일 할머니 생일이라 보러 가는데 선물로 드리려고.  
 효은: 예쁜 것 같은데, 너희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점원: 이게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다연: 혹시 빨간색도 있나요?  
 점원: 네, 있습니다. (빨간색 티셔츠를 건네며) 이 옷 색상이 너무 예쁘죠?  
 다연: 네, 그러네요. 값은 얼마죠?  
 점원: 네, 3만 원이십니다.

	잘못된 높임 표현	까닭	바른 표현
점원	①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② 인기 많은 상 품이세요 ③ 3만 원이십니 다	①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 을 높일 때는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결합시켜야 한다. ‘상품’은 고객인 ‘다연’ 과 관련된 대상이므로 ‘계시 다’가 아니라 서술어인 ‘있다’ 에 ‘-(으)시-’를 결합시켜야 한 다. ② ‘이게(이것이)’가 주어이고 ‘이것’은 ‘티셔츠’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 용할 필요가 없다. ③ 생략된 주어는 ‘값이’이므 로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①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 시면 / 필요한 상품이 있 으시면 /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면 ②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 ③ 3만 원입니다
다연	① 생일 ② 보러	① 할머니의 생일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②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할머니인데 객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① 생신 ② 뵈러
효은	할머니가 좋아할	주어가 ‘할머니가’인데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3. 다음 문장에 나타난 시간 표현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 ㉠ 나는 어제 현서와 함께 숙제를 해 놓았어.
- ㉡ 그는 지금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있다.
- ㉢ 신랑이 곧 입장하겠습니다.

	㉠	㉡	㉢
시간 표현	① 어제, -았- ② -어(아) 놓다	① 지금, -는 ② -고 있다	곧, -겠-
기능	① 과거 시제를 표현함. ② 완료상을 표현함.	① 현재 시제를 표현함. ② 진행상을 표현함.	미래 시제를 표현함.

2-(2)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이론편]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이 문장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보기

- 너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 나도 네가 가는 곳으로 이번 주부터 봉사하러 가겠어.

- ‘혼났다’의 ‘-았-’은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간다’의 ‘-ㄴ-’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가겠어’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5. 다음 문장을 능동문으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자.

**피동문**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집니다.

**능동문**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립니다.

**표현 효과**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주체를 밝히지 않고, 버려진 대상인 개와 고양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표현 효과**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들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음.

6. 다음 문장 ㉠, ㉡에 사용된 피동 표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바른 표현으로 고쳐 보자.

	문제점	고친 표현
㉠ 창문이 잘 닫혀졌는지 확인해 봐.	→ ‘닫혀졌는지’에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됨.	→ 닫혔는지 / 닫아졌는지
㉡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됨.	→ 말썽을 빚고

7. 다음 문장의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간접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그는 “함께 산책하시겠어요?”라고 나에게 말했다.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 있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 그는 함께 산책하겠냐고 나에게 말했다.	→ 현우는 나에게 “네가 앉아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쳤다.

8. 다음 표현을 바르게 고쳐 보자.

- 1) ○○○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품입니다.  
→ ○○○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제품입니다.
- 2) 이 제품이 잘 입어지실 거예요.  
→ 이 제품이 잘 맞을 거예요.
- 3)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서술한 것을 고르면?**

- ①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격식 있는 문체가 된다.
- ②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③ ‘철수가 만든 장난감을 강아지가 부수어 버렸다.’에서 ‘만든’의 ‘-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버렸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④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 ⑤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 표현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2. 잘못된 표현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 ②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③ 내가 상을 탔다니 믿겨지지 않아.
- ④ 그 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어요.
- ⑤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바탕으로 능동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탐구한 것이다. 올바르게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김기자 :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여섯 시쯤 ○○구 ○○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①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이 중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복과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교복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 가량 올랐으며, 운동화는 9%, 가방은 6.5%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③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 ①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② ②를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로 바꾸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③ ③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 ④ ④는 내용의 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 ⑤ ⑤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대전대신등학교 (대전)**

**4. 다음 중 동작상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상 :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 ② 진행상 : 지금쯤 고구마가 잘 익어 있겠다
- ③ 진행상 : 기차가 그때 막 들어오고 있었다
- ④ 완료상 : 영우가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완료상 : 승주는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나 조사가 아닌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주무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여쭙다)  
 ㉢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체언(예 사장님)  
 ㉣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체언(예 덕)

- ① ㉠, ㉡이 모두 쓰인 문장 : 아버님께서 아직 음식을 드신다.
- ②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어머니를 설득하여 치아를 교정해 드렸다.
- ③ ㉡, ㉢이 모두 쓰인 문장 : 동생은 사무실로 가서 그분을 직접 찾아뵈었다.
- ④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언니는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쭙어 보았다.
- ⑤ ㉢, ㉣이 모두 쓰인 문장 : 나는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기억한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우리는 내일 프랑스 여행을 간다.  
 ㉡ 그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었다.  
 ㉢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번 농사는 다 지었다.  
 ㉤ 어제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

- ① ㉠ :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ㄴ-'이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 ② ㉡ : '-었었-'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③ ㉢ : '-었-'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겠-'이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 : '-었-'은 발화시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 : '-더-'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아버지 : 지수가 책상 정리를 ㉠하고 있구나.  
 지수 : 네, 바자회에 기부할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아버지 : 잘 했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구입한 책은 어디 있지?  
 지수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아버지 : 그렇구나.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지수 : 네, 조금 후에 저랑 같이 바자회에 ㉤갈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ㄴ-'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대신고등학교 (대전)**

8.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를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옷이 잘 입어지실(㉠ 이 옷을 잘 입으실) 거예요
- ② 텔레비전에 비치는(㉡ 비치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 ③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예상됩니다.)
- ④ 이것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작된) 제품입니다
- ⑤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사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컨대, '안다'에 접미사 '-기-'가 결합한 '안기다'는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 캠핑 중에 모기에게 다리를 물렸다.  
 ㉡ : 엄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 ① ㉠ : 야외에서 직접 경관을 보니 그림의 구도가 쉽게 잡혔다.  
 ㉡ : 병이 낫자마자 아이에게 붓을 잡혔다.
- ② ㉠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 : 누나가 동생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③ ㉠ : 책상 위의 원고들이 바람에 날렸다.  
 ㉡ : 꼬마들이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 ④ ㉠ : 친구가 새 가방을 내게 보였다.  
 ㉡ : 투병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보였다.
- ⑤ ㉠ : 칭얼대는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혔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10. <보기>의 ㉠과 ㉡에서 밑줄 친 말의 의미를 비교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일반적으로 '-았-/-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았-/-었-'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뻐다.  
 ㉡ 발목을 다쳤더니 너는 수학여행은 다 갔다.

<조건>

- ㉠의 '-었-'은 ~을(를) 의미함'의 형식으로 쓸 것.
- ㉡의 '-았-'은 ~처럼 표현함'의 형식으로 쓸 것.

**석관고등학교 (서울)**

11. 높임 표현과 상대 높임 체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①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 하십시오체
- ② 아저씨, 강아지가 정말 귀여우세요. - 격식체
- ③ 교장선생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하오체
- ④ 정연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하계체
- ⑤ 네, 고객님. 이 제품 정말 잘 나가세요. - 해체

**석관고등학교 (서울)**

12. 밑줄 친 부분에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 ① 현우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 ② 아버지께서 파전을 맛있게 드신다.
- ③ 예지가 선생님께 수학문제를 여쭙었다.
- ④ 승찬이가 과일을 깎아서 어머니께 드렸다.
- ⑤ 경호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정류장으로 나갔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3. 밑줄 친 부분에서 시제가 다른 하나는?

- 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 ② 민기가 운동장을 달린다.
- ③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 ④ 내 친구가 물을 많이 마신다.
- ⑤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니?

**1-(1) ① 자화상**

1.① 2.⑤ 3.① 4.② 5.④ 6.매운 계절, 채찍, 서릿발 칼날, 겨울, 고원 7.④ 8.⑤ 9.④ 10.㉠점층법, ㉡시적 허용 11.④ 12.② 13.⑤ 14.③ 15.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법) 16.① 17.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는 달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나이를 미워하다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있는 사나이를 통해 그리움으로 변함. 18.①, ④ 19.④ 20.② 21.북방, 고원 22.⑤ 23.④ 24. ① 25.② 26.③ 27.③ 28.② 29.가없어집니다. 30.④ 31.미움, 연민(가없음), 미움, 그리움 32.② 33.① 34. ④ 35.⑤ 36.③ 37.⑤ 38.④ 39.'거울': 자아성찰의 매개체임. 40.① 41.① 42.③ 43.⑤ 44.④ 45.③ 46.④ 47.② 48.⑤ 49.③ 50.⑤ 51.④ 52.③ 53.⑤ 54.⑤ 55.2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짐 (연민), 3단계: 도로 가 들여다 보니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짐(미움), 4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짐(그리움), 결과: 화해(내적 갈등의 해소)

**1-(2) ② 최적전**

1.⑤ 2.(최적의) 통소소리, (조선 말로) 시를 읊는 소리 3.③ 4.⑤ 5.가족과 재회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 6.② 7.⑤ 8.③ 9.⑤ 10.②⑤ 11.⑤ 12.④ 13.㉠감정 ㉡그림자 14.④ 15.② 16.① 17.⑤ 18.㉠우연적, ㉡천우신조 19.③ 20.② 21.④ 22. ③ 23.통소 소리, 시 소리 24.④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 있음. 25.⑤ 26.① 27.② 28.㉠ 옥영의 꿈, ㉡ 통소 소리 ㉢ 시 읊는 소리 29. ⑤ 30.⑤ 31.① 32.③ 33.통소 소리, 시를 읊는 소리 34.① 35.② 36.③ 37.① 38.① 39.④ 40.⑤ 41.② 42. ③ 43.④ 44.③ 45.① 46.② 47.② 48.'최적전'은 전란의 참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반면에 '박씨전'에서는 전란 속에서 영웅의 활약상을 전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9.③ 50.④ 51.⑤

**1-(2) 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1.② 2.③ 3.④ 4.③ 5.④ 6.① 7.② 8.④ 9.⑤ 10.무차별적인 소비, 무한 경쟁 / 술방울 11.㉠희망 ㉡폭력 ㉢인간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12.⑤ 13.⑤ 14.②④ 15.① 16.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 17. ㉠ 당신, ㉡ 편지 18.⑤ 19.⑤ 20.② 21.④ 22.② 23. ④ 24.⑤ 25.당신, 필자, 거리. 공감대 26.술방울, 희망, 인간, 폭력, 자루 27.① 28.③ 29.④ 30.② 31.⑤ 32.⑤ 33.⑤ 34.① 35.③ 36.④ 37.④ 38.④ 39.③ 40.

㉠ - 독자 ㉡ - 당신 ㉢ 필자가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1-(2) ②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1.① 2.⑤ 3.② 4.⑤ 5.④ 6.④ 7.② 8.④ 9.② 10.과학 연구의 자유 11.③ 12.① 13.④ 14.⑤ 15.④ 16.③ 17. ② 18.① 19.⑤ 20.② 21.⑤ 22.① 23.③ 24.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25.③ 26. ⑤ 27.④ 28.③ 29.③ 30.제1차는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하는 것이고 제2차는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됨.

**2-(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1.⑤ 2.③ 3.관용의 격률 4.④ 5.③ 6.② 7.② 8.④ 9. ⑤ 10.④ 11.② 12.① 13.동의를 격률: 상대의 일치점 최대화, 이견은 최소화 14.③ 15.③ 16.은태가 어긴 격률은 요령의 격률이며 어긴 까닭은 광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령만 내렸기 때문이다. 새별이가 어긴 격률은 동의를 격률이며 어긴 까닭은 진아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했기 때문이다. 17.⑤ 18.④ 19.① 20.② 21.① 22.⑤ 23.② 24.③ 25. ② 26.② 27. ㉠ 태도의 격률: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언어 예절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 ㉡ 칭찬의 격률: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 ㉣ 관용의 격률: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28. ① 29.① 30.② 31.② 32.⑤ 33.②

**2-(2)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 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니다 → 3만원입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

⑤ 과학 연구의 대부분이 아니라,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임

13. ④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취지로 ㉠이 맞어짐.

14. ⑤

① 과학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해진 것이지, 책임 한도가 분명해진 것이 아님. ② 소규모의 연구가 아닌,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뀜. ③ 과학자의 연구 활동의 자율성은 퇴조됨. ④ 무제한적인 지원이 아닌,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됨.

15. ④

▶‘그렇게 되게 하다.’

① ‘허물이나 상처 따위를 생기게 하다.’ ② ‘규칙이나 법, 제도 따위를 정하다.’ ③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 ⑤ ‘기관이나 단체 따위를 결성하다.’

17. ②

▶공공 이익이 아닌,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됨.

18. ①

▶학문 및 연구의 자유가 우리나라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음.

19. ⑤

▶㉠ 제고(提高): 쳐들어 높임.

**▶옳다, 1등급 조연◀**

국어 내신은 때로는 기억력 테스트이기도 하다. 기억력 테스트 수준의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위와 같은 어휘 문제는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교과서 날개 부분에 제시된 어휘는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에 임하자.

20. ②

▶㉡는 안전과 윤리성을 고려해 과학 시험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학 발전을 위해 무제한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22. ①

▶㉠은 자유권과 관련되는 기본권을 보장받게 되는 계약임.

23. ③

▶㉢로 인해 과학 연구의 비윤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과학 연구의 비윤리적 특성 때문에 ㉢가 강조되는 것이 아님.

25. ③

▶‘제1차 사회 계약’ 직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국의 제

안과는 상관없이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제정.

27. ④

▶㉢‘이면’: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28. ③

① 20세기 중반이후에는 연구의 자유가 제한됨. ② 제2차 사회계약이 맺어지기 이전부터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작됨. ④ 제1차 사회 계약의 정신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임. ⑤ 과학 연구 활동을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든 것은 과학자들의 자만심이 아닌, 제2차 사회 계약 때문임.

29. ③

①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 ② 학문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④ 정부의 제한적 제한으로 제원을 받기 위해 ⑤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됨.

**2-(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1. ⑤

▶동의를 격률: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되는 면을 최대화.

2. ③

▶새롭이는 불이의 의견과 차이점이 있어 반대하므로 동의의 격률을 어기고 있음.

4. ④

▶겸손하게 말하는 지애에 비해 서연은 자신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라는 말하기’와 관련됨.

5. ③

▶(가)와는 다르게 (나)는 자료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기에 관용에 격률에 해당.

6. ②

▶동의를 격률은 상대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일치시키는 것이 아님.

7. ②

(가) 혼자만 오랫동안 말함 (나) 침묵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  
(다)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 (라) 다른 화제로 대화의 흐름 방해함

8. ④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함.